

‘화이자백신바닥’ 사실아냐, 집중계획대로

“화이자, 매주 정기적으로 순차도입되고 있어”

“6월 말까지 1200만명 접종 차질없이 이를 것”

“5월중 서울 초중고 교직원·학생 26만명 접종”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차단 관리 강화할 것”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일 “주말 일각에서 ‘화이자 백신 바닥’ 등의 표현으로 지나친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오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백신접종은 당초 방역당국이 계획하고 구상한 범주와 일정에 준거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직무대행은 “특히 상반기 도입 물량 1809만회분 중 화이자 백신이 약 40%인 약 700만회분을 차지하는 바, 화이자 백신은 일정지연 없이 매주 정기적인 요일에 순차 도입되고 있다”며 “앞으로 5~6월중에도 500만회분이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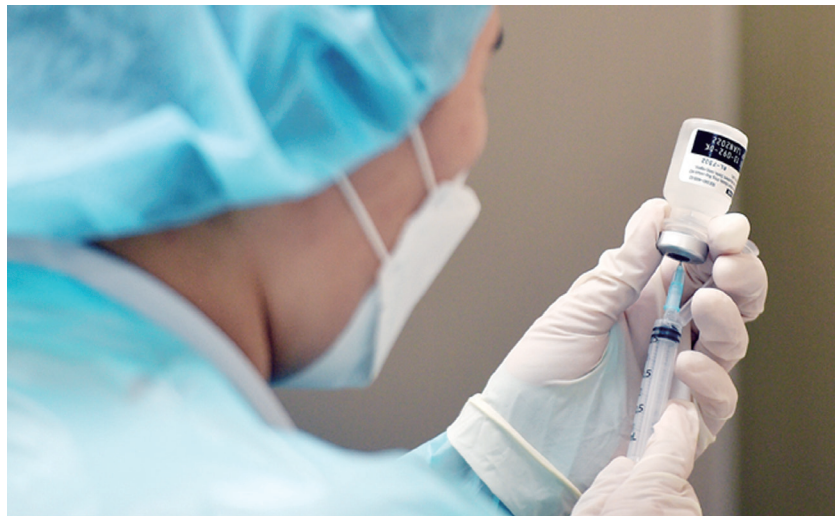
또 홍 직무대행은 “1차 접종 실시와 순서가 도래한 이들에 대한 2차 접종 실시를 차분히 고려하면서 접종을 진행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6월까지 1200만명 접종목표도 차질없이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수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시로 국민들께 설명해드릴 것”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왜곡돼 전달됨으로써 국민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은 치열한 방역전 수행과 국민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3주 동안 연장되고, 특별방역관리 주간도 1주 연장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홍 직무대행은 “(확진자가) 좀처럼 600명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데다가 5월이 모임이 많은 가정의 달인 만큼 더 긴장되고 비상한 각오로 5월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 점을 감안해 5월중에 각별한 ‘접촉자제와 수칙준수’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 직무대행은 정부합동 특별 방역점검과 더불어 선제검사를 확대하겠다고면서, “특히 5월중에는 서울지역의 초·중·고 교직원·학생 26만명 및 노인시설 종사자 2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해서는 “인도발 변이바이러스가 최소 17개국에서 발견되고 있어 국내 유입 차단 문제도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전파 억제 및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경기, 울산 등 변이 바이러스

확진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별도 차단대책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자치방역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전남 지역 22개 전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홍 직무대행은 “(전남지역 개편안)이 확정되면 경우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전국 최저인 전남지역은 이번 조치로 내일부터 일주일간 6명 이하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영업제한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완화되더라도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민정기자

광양소방 금호센터,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 금호119안전센터는 화재가 증가하는 봄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으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9년 10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됐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 소화설비 중 소화필포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백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광양=심종섭기자

완도해경, 해상 연료고갈 좌주 레저보트 긴급구조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달 25일 오후 12시 30분경 장흥군 죽청항 인근해상에서 뱃에 얽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레저보트(1톤급, 승선원2명)를 긴급구조 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5일 장흥군 죽청항 인근해상에서 레저보트 A호가 연료가 고갈 되어 표류하던 중 저수심으로 인해 뱃에 얽혀 좌주되었다는 신고가 완도해경 상황실로 접수되었다.

이에 완도해경 회진파출소는 연안구조정과 순찰차를 급파, 현장 도착 후 상황을 파악한 결과 승선원 2명은 안전상태 이상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고선박도 육안상 파공 등의 위험 없이 뱃위에 좌주돼 운항이 불가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현재 저조로 인한 접근 어려움으로 각종 통신망, 망원경 등을 이용해 지속적 안전관리를 실시 중이며 만조 시 연료전달과 예인을 통해 안전지대로 이송할 예정이다.

완도=이민혁기자

순천소방, 전통사찰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실시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장(소방경 황화연)은 최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통사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 예방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통사찰 화재는 정읍시 내장사 대응전(21.3.5) 및 남양주시 수진사 나한전(20.10.14)가 방화로 발생해 불행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과 연계해 관내 전통사찰 4개소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관내 전통사찰인 ‘천은사’는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지어져 산림지대에 위치를 하고, 불특정다수인의 출입이 잦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요인이 많다.

촛불·연등과 같은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구례센터는 석가탄신일에 개최될 불축행사에 많은 사람이 사찰을 찾고 연등 설치 등 화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천은사’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관계자 면담 및 화재 안전 당부 ▲촛불, 연등 등 화재 취약요인 제거 등이다.

구례119안전센터장은 “부처님 오신날 행사와 관련한 연등 설치 등 화기 사용 증가로 사찰의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며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주변 산림으로 연소확산이 되지 않도록 평소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순천농협, 금융사기 예방·대포통장 근절 위한 홍보 캠페인 전개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채)은 지난 달 29일 순천농협 파머스마켓 인근 거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본·지점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현수막과 어깨띠를 두르고 출근길 시민들에게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홍보했다.

순천농협 강성채조합장은 “농협의 주 고객인 농촌 어르신들과 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주요 시간대에 공익 광고 방송을 통해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에 좀 더 힘써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화금융사기와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융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농업인과 서민들을 위해 4월과 9월에 실시하고 있는 농협의 금융사기 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이 빛을 발하고 있다.

한편, 농축협 창구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은 2018년(279건, 69억원), 2019년(754건, 155억원), 2020년(1,198건, 2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도 3월말 기준 242건에 50억원의 피해예방 성과를 내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